

# 양산보에 직접 듣는 소쇄원의 유래와 풍류

〈소쇄 처사〉

내년 3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2차례  
체험 프로그램 진행

문화부 테마여행 사업  
조선시대 의복 착용  
각 분야 전문가들 안내  
'처사 밥상' 등 식사 제공



지난 30일 담양 소쇄원에서 시민들이 조선시대 복장을 입고 소쇄원 경내를 탐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원림 소쇄원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찾은 담양 소쇄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늘로 시원하게 쪽 뻗어있는 대나무 숲 앞에 흐르는 계곡에는 청동오리가 무리지어 떠다니고 광풍각과 제월당 앞의 작은 연못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소쇄원에는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갖을 쓴 선비들과 두루마기를 갖춰입은 여인과 학동이 등장했다. 명승 제40호인 담양의 소쇄원을 양산보와 함께 거닐며 체험하는 '소쇄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쇄원' 프로그램 프레스 오픈에 참가한 이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은 양산보의 생애와 소쇄원의 속살을 체험하고, 소쇄원 조성 당시의 의도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참가자들이 1550년대 선비와 학동, 여성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은 후 양산보와 해서 김인후로 설정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소쇄

원 경내의 이모저모를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양산보의 역할을 맡아 체험을 주도할 전문가로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한다. 건축분야의 천득염, 김재웅 교수를 비롯해 국문학 분야는 김대현, 임준성 교수가, 동양철학은 전남대의 이향준 박사와 금곡서당의 서상일 훈장, 조선대학교의 안동고 박사가 수행한다. 또 애일당의 강기욱, 포플레이의 나의승씨,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소쇄원 48영을 화폭에 담아 냈던 하성흡 화백 등도 양산보 역할을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의 각본은 소쇄원의 실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해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을 토대로 광주여대의 임준성 교수가 썼으며 소쇄원의 조성 당시를 상징하는 의상은 광주대학교 복식전문가 안명숙 교수가 고증하고 제작했다.

참가자에게는 식사도 제공된다. 양산보의 생활을 반영해 안빈낙도를 구가한 '처사밥상'과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반영한 '거사밥상'을 '무돌길 쉼터'(충효동 평촌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밥상은 전남대학교 박진석 박사가 평촌마을의 무돌길 쉼터 장인자 부녀회장과 함께 개발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밥상에 쓰일 그릇도 충효동 도요지의 분청사기를

재현한 평촌 도예공방의 이은석 도예가와 토인공방의 김영설 도예가의 작품을 활용해 준비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감독이자 20여년 전 소쇄원에서 지킴이 역할을 했던 전고필씨는 "한해 24만명이 오시는 소쇄원인데 표피를 보며 아름다움만 논하고 가시는 것이 안타까워 내부의 나무하나,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담았다"며 "조금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 만큼 이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쇄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쇄원'은 12월 2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청소년은 1만2000원, 성인은 1만5000원이다. 체험비용은 소쇄원 입장료와 식사(처사밥상), 의복비, 분장비가 포함됐다. 참가신청은 행사 일주일 전 마감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소쇄원 누리집(www.soswaewon.co.kr)과 블로그(blog.naver.com/namdogofeel/)로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225-2015, 이메일 namdogofeel@naver.com.

전문의 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전당 어린이 그림책 서현 작가 원화전

10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2017 어린이 책읽어터-너나들이 '오예! 그림책' 서현전'을 오는 10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진귀한 상상력과 해학이 돋보이는 그림책 '눈물바다' 작가 서현의 원화 전시로 '눈물바다'를 포함한 '켜졌다!' '간질간질'의 팬화, 채색 원화, 아트프린팅 등 작품 200여점을 선보인다. 더

불어 손톱스케치, 더미북, 캐릭터구상, 색채구상 스케치를 함께 전시하여 그림책이 집필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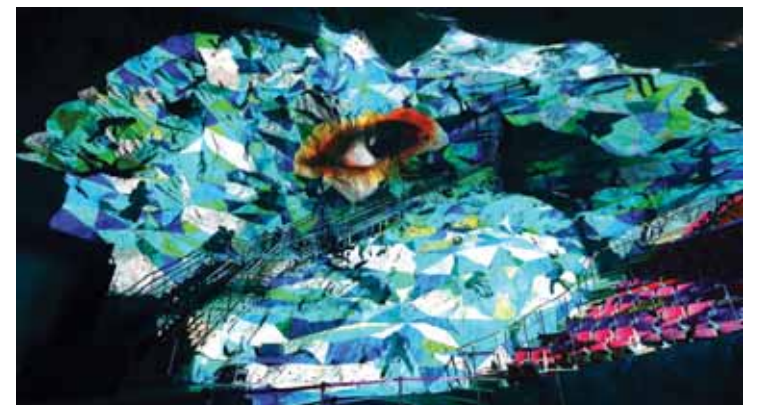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그림책 '눈물바다' 속 주인공의 눈물이 바다를 이룬 장면과 '간질간질' 속 문어를 주인공 공이 횡단하는 장면을 대형 일체 팝업형태로 전시하여 아이들이 그림책을 친숙한 현실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의 기획 전시로 어린이체험관 입장권 구매 후 관람이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



'눈물바다'

##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 6명 작품전

은암미술관  
6~12일  
레지던스 결산전



▶진시영 작 '빛의 연대기'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1~3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열린 데 이어 지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나명규, 정선휘, 정운학, 손봉제, 조용신, 진시영 작가 등 국내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국제적인 미술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아티스트를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감성과 디지털'을 주제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은암미술관 레지던스 사업 '경양예술길' 프로젝트의 총괄결과 보고 전시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지난 6개월간 계림동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에서 머물며 작업을 구상하고 완

성했다.

한옥을 개조한 은암미술관의 경양예술길 레지던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와 도심재생, 작가 창작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최근 미술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화화뿐만 아니라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그대로 활용해 눈길을 끈다.

은암미술관은 설립 7년을 맞아 기존의 2층 전시장과 더불어 1층까지 전시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을 보완했다. 8일 오후 3시부터 퍼포먼스, 공연 등이 곁들여진 '그랜드오픈' 행사도 열린다. 062-231-52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 청년예술가 작품 소장 기회

롯데갤러리

내년 1월 2일까지  
'noma + jean'전



▶박성완 작 '함덕해변 오후'

연말연시가 되면 고마웠던 이에게 선물을 하는 이들이 많다. 롯데갤러리는 연말을 맞아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월 2일까지 한달 여간 진행되는 전시 'Art sale festa ; noma + jean'전은 지역 비영리 문화공간 '지구발전오라'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광주 전남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68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총 125점이 출품되는 전시 작품 구성은 평균 4~50만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 선에서 소장할만한 소품 위주로 꾸려졌다.

전시 부제 'noma'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jean'은 젊음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지칭한다. 풀이하지만, 젊음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감을 뜻하는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전파하

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참여 작가는 광주 전남지역 20대 작가 17인, 30대 작가 26인, 40대 작가 10인을 포함해, 전북 지역의 3~40대 작가 15인이며 24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한다. 장르 구성은 서양화, 한국화, 사진 등의 평면작업부터 입체작업인 조소, 공예 등이며 작가들의 아트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강지수, 김연호, 강동호, 골드원, 김경란, 김동아, 김명우, 김수진, 김현주, 노여운, 박성완, 박세희 등이다.

전시 부제 행사로 '선물바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점 한정판으로 판매가 10만원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랜덤 형식의 럭키박스 프로그램이다.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